

상대당 당원에까지...대선후보 특보 임명장 남발 논란

민주·국민의힘 대선 캠프
모바일 임명장 무차별 살포
일부 언론계 인사까지 포함
개인정보법 위반...선관위 조사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 직위 임명장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대 정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선대위 관계자들은 물론 일부 지역 언론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모바일 임명장이 보내지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면서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여야 대선 캠프 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개인 동의없는 임명장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박진원 의원과 당원들 7~8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바일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27일 민주당 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의 모바일 임명장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당원이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양을 지역구로 도의원 선거에 나설 박경미 예비후보에게도 국민의힘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청회광양대 광양시 특보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발송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당 소속 기초의원 뿐 아니라 당직자·당원들에게 국민의힘 윤 후보의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시장

으로 접수된 사례만 7~8건이고, 선관위에 개인적으로 고발한 경우나 국민의힘이 당사자 동의없이 보낸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꽤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도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관계자에게 특보 임명장을 모바일로 전달해 물의를 빚었다. 이 후보 명의의 민주당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정운현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고문에게 보낸 것이다. 정 고문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으며, 총선까지 출마했었다. 정 고문은 관바로 광주시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선관위는 정 고문 건 외에 1건을 추가로 제보받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조사결과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지역위원회에서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윤 고문의 전화번호를 지역위원회에 건넨 당사자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 고문 이외에도 또 다른 한 명의 당원이 민주당 특보 모바일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국에서 발행된 임명장 16만 건 중에 국민의힘쪽 인사에게 발행된 임명장은 3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 선거 캠프의 각종 위원회가 대선 승리를 위해 할 경우 자신들의 공을 앞세우기 위해 앞다퉈 경쟁적으로 특보단을 모으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논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편파판정'에 여야 한목소리 성토

이재명, 중국 당국 직접 겨냥
윤석열 "공정에 실망할까 걱정"
反中 비판하던 민주, 강경 발언
국힘 "親中 정책 대가 성찰해야"

여야는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파 판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중(反中)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2030 세대의 표심에 부응하려는 듯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올림픽 개최식에 등장한 한복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추가 배치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중 정서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맹폭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앞장선 점도 눈길을 끈다.

앞서 민주당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5일 SNS에서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벌이는 데에 침묵할 수는 없다"며 "우리 2030 청년들이 강한 반중 정서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할 올림픽이 자칫 중국 동내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편파판정에 대해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당국을 직접 겨냥,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SNS에서 "수년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오로지 이념만을 기다려 온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여야 의원들도 일제히 편파 판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할 편파 판정"이라며 "공정이 훼손되고 스포츠맨십이 파괴되는 참담함을 느껴야만 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자 쇼트

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 판정.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 선수단에 메달을 몰아주기 위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무시한 수준을 넘어 중국이란 나라의 국격을 의심케 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세계와의 공존보다 굴기에만 집착하는 전근대적 제국주의의 모습"이라면서 "우리 정부 여당에도 촉구한다. 지난 5년 중국에 기대고 구애해온 친중 정책의 대가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며 현 정부의 대중 정책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홈 텃세 판정과 메달 욕심에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부터 막장 올림픽으로 치닫고 있다"며 "동계올림픽이 무슨 중국 전국체전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도 SNS에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 모두는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잘 알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투표권 행사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초접전으로 갈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투표를 저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